





남에게 만들어가는 마을이야기, 사람이야기

마을 그리고  
시민이 만든  
희망과 나눔의 보지







“골목을 걷다가 귀엽고 환한 그림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문득 벽화 속의 숨은 이야기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내 아이나 혹은 치매 어르신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 지역의  
블랙박스 정보를 수색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 어른...마을주민들이 건네 준 이야기입니다.

복지는 받기만 하는 걸까요?

이웃에게 건네는 친절한 말, 작은 나눔, 좋은 정보공유 등을 지속적  
으로 실천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드는 생활 속의 복지입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다, 힘들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나도 해볼 수 있겠다’하는 작은 일들이 나에게서 우리로  
이어진다면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글 : 성남시 복지정보통신원 ‘따스피아’

강현옥, 김아현, 고희원, 남궁희정, 류덕자, 박정숙, 방신웅, 배서은  
서희선, 유형순, 이승미, 이용원, 이현정, 임성혜, 임희정, 홍희정

## 하나, 마을이 만든 복지



- 10 누가 그렸을까? 왜 그렸을까? \_ 다섯손가락과 은행동 벽화이야기
- 14 엄마와 아이들이 행복한 금빛마을 \_ 선생님이랑 친구랑 놀 수 있어 참 좋아요
- 18 도촌동, 섬마을 공동체 마을 놀이터에 가다 \_ 우리동네 사랑방
- 22 safe 산성마을, 블랙박스 \_ 마을을 안전하게, 가족을 행복하게
- 28 부활을 꿈꾸는 신흥시장 \_ 마을에 터 잡은 젊은이, 외국인에게도 소통이 가능한 곳
- 32 마을주민이 만들어가는 ‘청솔마을라디오’ \_ 매일 매일이 삶의 에피소드
- 36 아이디어가 문화를 창조한다 \_ 청년 창업멘토, 문화 숲 ‘플레이마켓 재미’
- 42 아인스바움, 흙이 흙을 더하다 \_ 비장애인과 똑 같은 하루



## 둘, 시민이 만든 복지



- 50 친절과 웃는 얼굴의 감성복지 \_ 해피바이러스!! 시청을 대표한 미소 선물
- 54 음악재능을 나눕니다 \_ 산책길 즐겁게 해 주는 하나색소폰 동호회
- 59 일터를 사랑방으로 \_ 마을의 행복 비타민 김영선씨
- 64 이웃과 소통하는 의료 \_ 살구나무 심는 한의사
- 72 장애청소년들에게 희망을 \_ 장애 디디고 감동의 매신저 된 배민수군
- 76 유산기부를 실천하다 \_ 성남시의 자랑 홍계향 할머니
- 82 혼자보다는 함께 win-win \_ 지역상권과 의료업의 동행

★ 시민이 만든 복지는 「2015년도에 제작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민이 만든 복지서비스 편에 실린 글입니다.







---

# 하나, 마을이 만든 복지

---



# 누가 그려을까? 왜 그려을까?

## [다섯손가락]이 만들어가는 은행동 벽화이야기

누가 그렸을까? 왜 그렸을까?

“골목을 걷다가 귀엽고 환한 그림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문득 벽화에 숨은 이야기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느 은행동 주민이 건네준 이야기에 솔깃한 마음으로 여기 저기 수소문을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며 퐁퐁 숨어있던 ‘다섯손가락’을 만났다.

처음 만날 때도, 다섯손가락의 청소년들은 은행동 향기교회 언덕 아랫길에서 벽화를 그리고 있었다. 어두운 회색빛 담벼락 벽화 속의 ‘백설 공주’는 동네 꼬마 아이들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 했다.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화기에애한 모습으로 ‘자원봉사 하는 토요일’을 기다린다는 청소년들, 그들은 누구일까?

청소년자원봉사단 ‘다섯손가락’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행복 나눔의 참 의미 깨닫기’라는 목적으로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에 소속된 청소년 자치기구로 2013년에 결성되었다.





##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곳

“다섯손가락을 보면 서로 다른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만, 한 손이 되어 같은 일을 해내는 것처럼, 저희도 다른 성격, 다른 학교의 친구들이 ‘큰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로 모인 중·고등 학생들이예요.

지금은 3기까지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역 환경 개발’, ‘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 하고 있어요. 다섯손가락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가장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자치동아리처럼 정해진 커리큘럼이나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맞춘 것이 아닌, 단원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과 특징을 갖고 있어요.”

(송신여고1, 김혜란 단장)

## 삶의 원동력, 다섯손가락

다섯손가락은 그동안 자원봉사교육, 타 시설(기관) 견학, 토론 및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활동이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고, 그러면서 단원들 스스로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을 찾아 고민하던 중에 ‘동네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활동’에 초점을 두어 ‘담벼락에 벽화 그리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한다.



“벽화를 그리고 있으면 동네 꼬마아이들이 주변을 맴돌면서 아주 많이 좋아했어요. 또 어떤 아줌마, 아저씨는 추운데 고생한다며 따뜻한 차와 음료수도 주셨어요. 저도 그렇지 만 친구들도 벽화 그리는 시간이 즐겁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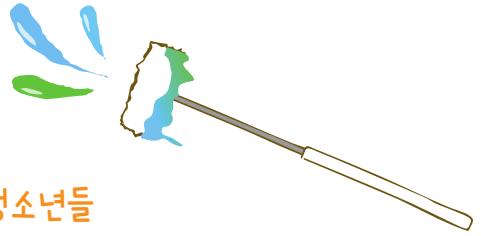
“다섯손가락은 저에게 원동력이예요. 야간자율학습, 학원, 바쁜 학업과 동아리 활동을 하다보면 다른 친구들보다 시간이 없다는 불안감이 있을 때도 있지만, 토요일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어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공부시간, 수업시간에 더욱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말에 시간이 있으니까 하고 미루던 습관이 주말에는 벽화도 그려야 하고, 회의도 한다고 생각하니, 미리미리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송신여고1, 노현정 부단장)

“다섯손가락의 활동으로 부모님께서도 제가 휴일을 좀 더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고 좋아하세요. 저는 어떤 활동을 하든지 걸으러 드려나는 결과가 아니라 제 성격에 좋은 영향을 주고, 무엇이든 활동 하는 것 자체가, 제 삶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신여고1, 김혜란 단장)





## 자신의 가치와 자신감을 키워가는 청소년들

다섯손가락 단원들은 면접을 통해 ‘자발성과 자기의지’가 있는 청소년들로 형성되었고, 그만큼 활동 내내 모두들 표정이 밝았다. 학생 신분으로 학업과 병행하려니 시간적으로 여유롭기는 힘들지만, 다섯손가락 단원들은 꾸준히 벽화그리기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더불어 다양한 봉사활동을 계획 중이다.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의지에 비해 성남시의 자원봉사 수요처가 적어서 실제로는 자원봉사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섯손가락 지도교사, 김정호)라는 선생님의 말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지.

더불어 사는 것에 관심과 주체의식을 갖고 지역주민들이 밝게 웃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실천하는 다섯손가락 단원들은, 조용하지만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신들의 가치와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었다. 다섯손가락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른 민주시민으로 커가며, 더욱 빛나길 기대해본다.

(문의 :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031-729-9900)





## ‘엄마와 아이들이 행복한’ 금빛마을 학습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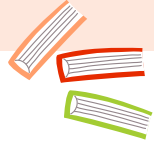
“선생님이랑 친구랑 같이 수업하면서 놀 수 있어 참 좋아요”



금빛마을 학습공동체 ‘물푸레 작은 도서관’을 찾은 날은 이슬비가 오는 듯 마는 듯 흐린 하늘에 살짝 한기가 느껴지는 11월의 스산한 어느 월요일 늦은 오후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금광동 고갯마루 골목길을 끝까지 올라가니 푸른색 간판을 달고 있는 베이지색 벽돌건물이 보였는데, 그곳이 바로 ‘물푸레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1층 문을 열고 들어가니 왼쪽에는 ‘웃는 나무 북카페’로 이름 붙여진 커피와 차를 주문받아 만들어주는 공간이 있었고, 그 주변 벽에는 빙 둘러 배치된 책장에 책들이 빼곡히 꽂혀있었습니다. 입구 쪽 테이블에는 수다를 떨고 있는 3-4명의 동네 아낙네들이, 더 안쪽에서는 해맑게 웃으며 놀고 있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 동네 아낙들의 수다의 장, 빨래터 같은 도서관

동네 아낙들이 삼삼오오 모여 빨래를 하면서 마음 속 이야기를 나누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빨래터’를 모티브로 만든 도서관, 바깥의 우울한 날씨와는 다르게 작은 도서관 안은 따뜻한 기운과 발랄한 생기가 넘쳐흐르고 있었습니다.



“관장님은 곧 오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동네 아낙 한명이 알려주었습니다.

“커피는 직접 타먹으면 500원, 주문하면 1,000원이에요.” 어느 꼬마 아이가 또 알려주었습니다.

## 도서관 앞이 곧 재개발에 들어가게 돼서...



김영신 관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재개발 이야기부터 하셨습니다. 9년 동안 활발하게 운영되어온 물푸레 도서관 사업에 위기가 닥친 듯 했습니다.

“저는 이사갔어도 꾸준히 오잖아요. 재개발 때문에 이사가도 계속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새로 이사 온 분들도 이곳을 이용

하게 될 거구요” 입구 쪽에 앉아있던 한 아낙이 김영신 관장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엄마들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2007년 도서관을 설립, 박영신 관장은 도서관 설립 때부터 도서관 내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다른 일로 바빠진 박미향 초대 관장과 정노금 2대 관장을 대신해 2013년부터 이 도서관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원 봉사로 도서관 운영위원 8명이 돌아가며 도서관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 평생학습마을 거점 공간으로 지정되면서...

2012년 5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마을 거점 공간'으로 지정되면서 3년간의 지원을 받으며 사회적 협동조합인 문화숨이 주최하는 마을디자이너와 마을 강사 과정을 열었고, 그 수업을 통해 마을디자이너 5명, 마을강사 8명을 배출해 활동하는 이들에게 소정의 인건비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물푸레 도서관에서는 일주일에 12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캘리그래피, 우크렐레 같은 주민프로그램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영어,수학교실, 동화송, 독서지도, 미술과학, 전업주부와 직장맘들을 위한 '마을학교 엄마선생님' 등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도서관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 이모 관장님, 제가 생각하는 「물푸레 작은 도서관」은요!



도서관을 오가는 꼬마 아이들은 그녀에게 ‘이모’라고 부르며 이것 저것 사소한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에게 김영신 관장은 엄마가 곁에 없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이모’같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곳에 온지 2년 됐는데, 고등학생 언니들이 와서 수학 멘토해주는 프로그램이 제일 좋은데, 언니들이 공부도 잘 가르쳐주고 잘 놀아줘요.”

(윤예림, 9세, 금상초 2학년)

“마술 수업도 되게 재미있었어요. 저는 메시나 호날두,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가 되는 게 꿈인데 이곳에서 운동도 가르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종수, 10세, 성남동초 3학년)

동네 엄마들이 즐겁게 소통하고, 동네 아이들이 엄마와 이모 옆에서 마음껏 공부하며 뛰놀 수 있는 이 같은 작은 도서관이 우리 동네에도 하나쯤 생긴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은가?



## 도촌동, 섬마을 공동체 마을 놀이터에 가다

###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우리동네 사랑방

중원구 도촌동 버스정류장 ‘섬마을 1,2단지 입구’에 내리면 바로 길 건너 ‘섬마을 공동체-마을 놀이터’라는 현수막이 한눈에 들어온다.

‘섬마을 공동체’는 양재연씨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마을 놀이터로서 소통과 학습의 장(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웃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보다 더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기 위한 정보 교환을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학습과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연구·기획·제공하며 마을 공동체 발전에 작은 힘을 보태고 있다.



## 우리 동네 사랑방, 마을 놀이터



“섬말 생태 숲 놀이터”와 “역사 탐방”은 주말과 방학을 이용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성인들이 마을이 안고 있는 천혜의 자원인 주변의 산과 천(川)을 탐방하고, 자연 환경에서 생태 체험놀이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큰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 섬마을 공동체 마을놀이터 가을학기 강좌

[일]	오전 10:00 ~ 12:00	부모가 되어 느끼는 그림책 속 아이세상 10월 10일부터 12개월 12강차 24시간
[일]	저녁 19:30 ~ 21:00	참치하고 연식보뜨게릴 10월 10일부터 12개월 12강차 24시간
[화]	오전 10:00 ~ 12:00	홈카페 바리스타 10월 20일부터 12개월 8강차 24시간
[화]	저녁 19:00 ~ 21:00	규방공예가와 함께 만드는 여성회자수 10월 20일부터 12개월 12강차 24시간
[목]	오전 10:00 ~ 12:00	손으로 만드는 행복한 손뜨개 10월 14일부터 12개월 12강차 36시간
[목]	저녁 19:30 ~ 22:00	인문타로 심화반 10월 20일부터 12개월 12강
[금]	저녁 17:00 ~ 21:00	엘리스의 Treasury : 세미스튜디오를 소개하는 홈카페(1강) 10월 20일부터 12개월 8강차 16시간
[토]	오전 10:00 ~ 12:00	성격유형에 따른 부모교육 예비워크숍 10월 14일부터 12개월 12강차 36시간
[토]	오후 18:00 ~ 19:00	초등 역사책 읽기 (교과서별) 1 10월 14일부터 12개월 12강차 24시간
[토]	오전 10:00 ~ 12:00	삼남학교 영어스토리텔링 10월 14일부터 12개월 12강차 24시간
[토]	오후 13:00 ~ 15:00	약용허리산도법 10월 14일부터 12개월 12강차 24시간
[토]	오후 15:00 ~ 17:00	생강염타승놀이터

장소 : 섬마을공동체 교육실 통  
문의 : 010-8254-1101  
(사무실 전담전화)



“어린이 법 탐험대 주부 로스쿨”은 어린이와 주부들에게 생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멘토 프로그램인 “영어, 미술, 과학 멘토 수업”은 성남외고와 서현 청소년수련관 봉사단이 지원하고 있다.

“평생학습 마을조성”의 사업으로 마을 강사와 마을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있으며, “홈카페 바리스타” “인문타로” “규방공예 야생화 자수” 등 총 12개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2009년 12가정의 친목 도모로 이루어진 소(小) 모임은 주민들의 관심과 배려로 거듭 발전하여 성남시와 경기도의 지원을 받으며 현재의 “섬마을 공동체-마을 놀이터(대표 양재연)”를 운영하고 있다.

양재연 대표는 “마을 놀이터라고 해서 마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마을 놀이터라는 특징을 살려서 마을 주민들에게 조금 더 심도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했으면 좋겠는데 한계가 있다”라며 마을에 대한 애착심에 많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 섬처럼 생겼다, 섬말

“‘섬말’이란 이름은 마을 앞과 뒤에 하천이 있어서 ‘섬처럼 생겼다’ 하여 비롯된 이름이며, ‘섬마을은 1925년 홍수가 나서 마을 주변이 모두 물에 잠기고 섬 모양으로 마을만 남아 섬마을이라 부르기도 했다’는 일설이 있으며 이를 한자로 도촌동 [島村洞]으로 표기 한다.”고 한다.

# 50F만 산성마을, 블랙박스

마을을 안전하게, 가족을 행복하게

## 블랙박스는 “마을 안전지킴이”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산성동 지역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차량용 블랙박스영상 나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이순규부장, 산성동 주민자치위원회 채석준위원장이 펼쳐놓는 산성마을의 안전 지도 이야기 속에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은 문밖의 우리 가족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 나눔?

산성동은 단대공원과 큰 도로로 타동과 분명한 경계를 보이고 있고, 단독 주택 밀집지역으로 지역 주민 간에 단합이 잘되고 있는 마을입니다.

성남시의 본 시가지는 대체로 골목이 많아 주민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골목마다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 차들을 불법 주차 형태로 놔두기 보다는 차 안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이용해 마을의 안전을 지키자는 아이디어로 탄생한 것이 바로 블랙박스 영상나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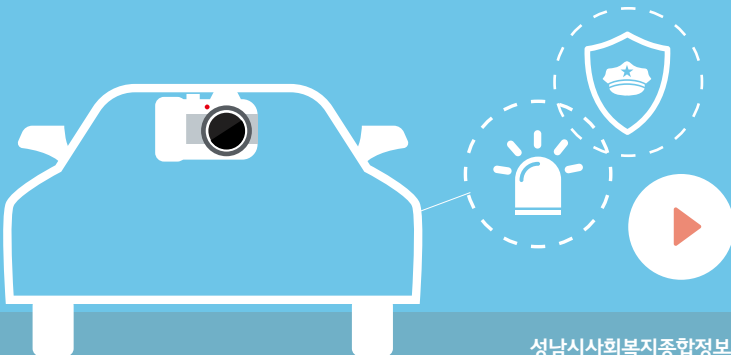
주민들의 블랙박스 불빛을 이용해 마을의 안전을 지키다는 의미, 주민이 보호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 블랙박스를 통해서 마을의 안전을 지키다는 의미의 사업입니다.

## 산성동은 치안이 불안한 동네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예방 차원의 형태입니다. 실제로 산성동은 타 지역에 비해 범죄율이 낮은 편입니다.

현재 산성동에는 17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 동네 외곽 쪽 큰 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골목 사이사이에는 사각 지대가 많은 상황으로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활용해 보자는 사고의 역발상을 통해, 차량을 골목의 통행을 방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 주는 존재로서 활용해 보자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블랙박스 서비스는 현재의 범죄율을 낮추자는 것 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의 사업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산성동 블랙박스 네트워크 지도를 작성하여 마을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주민이 참여자가 되는 동시에 수혜자가 된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마을과 자신의 안전을 지킨다는 것,이 것은 참여와 동시에 수혜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은 ‘나’와 ‘내 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사업은 남을 위해 내 차량의 블랙박스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가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마을 안전을 지키는 참여자가 되는 것이며 동시에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는 언젠가 나에게 일어날 지도 모르는 위험 상황에 아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아이나 혹은 치매 어르신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 지역의 블랙박스 정보를 수색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른바 “골목지킴이” 차량은 60여대입니다. 이들 차량을 소유한 주민들은 참여 동의서를 제출했고, 현재 골목지킴이로 활동하며 동네 일꾼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블랙박스 사업, 성남시 전체로 확대할 예정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한 주체는 산성동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이 사업의 협약기관으로는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산성동 복지회관, 산성동 주민센터, 산성파출소, 수정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협약기관의 주요 역할은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들을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성종합사회복지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성남시의 재난안전관에서는 산성동의 블랙박스 사업을 계기로 삼아 성남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마을안전지도를 만든다

주민들이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산성동 블랙박스 네트워크 지도를 작성하여 마을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마을안전지도란 이 사업에서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성동 전 지역을 안전 지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점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이 늘어나면 성남시 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마을안전지도로 확대되거나 각 마을의 소화전 배치와 관리, 또는 도로 정비, 그리고 길고양이 문제나 마을 쓰레기 문제 등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산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 중인 사회복지사와 주민들 간의 아침 인사 나누기, 월 1회 퇴근 길 인사 나누기 운동도 이런 기획안의 일환일 것입니다.





###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난 6월에 블랙박스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아직 효과를 충분히 체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지가 잘 되고, 복지비용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웃 간에 관심이 있어야 그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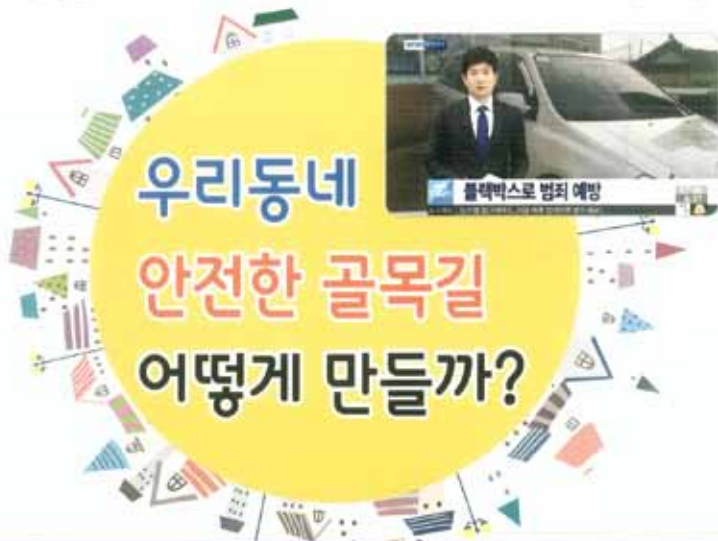
그리고 이웃 간 관심이 있더라도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데, 그것을 실행할 방법을 찾고자 했던 것이 이 블랙박스 영상 나눔 사업인 것입니다. 나 혼자 해결하려면 힘들지만, 다함께 노력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들 스스로 느끼면서 마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함께 모여 해결해 나간다면 그보다 더 좋은 복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산성동 블랙박스 사업은 밑에서부터 주민이 스스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동네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의미 있는 복지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산성동 블랙박스영상 나눔 「safe-산성마을만들기」



차량용 블랙박스로 골목길을 지키는  
우리동네 지킴이가 되어 주세요!!

홍보지 뒷면에 골목지킴이 회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해주시면  
골목지킴이 활동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마을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 협력기관 방문접수
- 이메일접수 : ssswc0453@hanmail.net
- 팩스접수 : 031-746-0478, 내방수령 : 010-9127-3746
- 카카오톡 Safe-산성마을만들기  
(신청서 작성 후 사진찍어 보내주세요)  
친구찾기에서 **Safe-산성마을만들기** 검색



산성동주민자치위원회

문의 031-729-5817, 010-9127-3746

협력  
기관



수정구 산성동 주민센터  
Samsung Young Center



청년수령장터  
산성파출소



수정구 산성동 주민센터  
Sanseong-dong Police Station



수정구지대형교편방  
산성동복지회관



산성동주민자치위원회  
Sanseong-dong Police Station



## 부활을 꿈꾸는 신흥시장

마을에 터 잡은 젊은이, 외국인 모두에게 소통이 가능한 곳

어릴적 엄마 손을 잡고 찾아갔던 시장은 넘쳐나는 사람들과  
알록달록 예쁜 색깔의 옷들과 갖고 싶은 장난감, 맛있는 냄새가  
풍기는 언제 가도 즐거운 곳이었다.

지금은 마트와 백화점에 밀려 왠지 시장하면 어둡고 불편하고 깨끗하지 않다고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1977년 7월7일부터 시작한 숯골 시장은 참나무가 많아 숯을 구워 팔던 곳이라 하여 숯골이란 지명을 갖게 되었다.

신흥시장 상인회는 쇠락해가는 시장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 구성되었다. 55명의 적은 인원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8개 상인회가 연합한 수정구로 확대되었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자생하는 모습을 보이자 성남시 활성화재단의 지원도 받게 되었다.



새로운 부활을 꿈꾸는 성남시 신흥 시장 상인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김준태회장님을 찾아뵈었다.



### 성남 이마트와 업무협약을 맺었다는데

2015년 1년간 신흥시장 회원업소를 이용한 방문객은 무료로 주차장을 사용 할 수 있는 업무 협약을 맺어 주차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상인 회의 모습에 시의 협조로 가능한 일 이었다.

주차장이 협소한 것이 시장의 불편함 중 하나인데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어 젊은 층 방문도 증가하고 있다.



## 수정구 상인 연합회에서 진행하는 문화 행사인 푸드락이란?

1회차에는 '상인회와 함께하는 벼룩시장'을 열었고 공연팀의 작품발표회를 함께 개최했다.

현재는 종합시장 같이 젊은이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흥대 인디밴드 공연이나 성남 FC 축구단의 후원행사를 기획하는 등 상권의 특색에 맞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벽화그리기 등 그 범위를 넓혀가며 다양한 계층을 유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상권화 활성화 일환으로 실시한 상인대학의 효과는?

여러가지 상황으로 상권이 죽어가면서 상인간의 교류가 줄어들고 시장분 위기가 어두워졌다. 이에 상인 대학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공동체 의식이었다.

교육을 통해 상인들 간의 공동체 의식이 강해지고 있으며 스마트폰 활용법이나 SNS 사용법 같은 IT 교육, 매장별 아이템 개발공동 홍보 등은 매출로 이어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는 상인 의식 교육을 넘어 각 상점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으로 까지 확대되었다.



## 앞으로 신흥 시장에 바라는 모습은?

“시장은 소통이 가능한 곳이다. 단순히 물품을 사고 파는 장소의 집합소가 아닌 사람간의 정과 대화가 가능한 곳이다. 그것이 시장만이 갖고 있는 가장 특색 있는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그 기능을 갖기 위한 작은 출발점이 노점이라 생각한다. 수정구, 중원구에 터 잡은 외국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그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 노점을 정비하여 규격화 한다면 노인들이나 외국인들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 인간미 느끼는 소통의 장

어릴적 추억을 나만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곳, 아이, 청년, 노인, 외국인, 세대를 다 통틀어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시장이 되길 바란다.



# 마을주민이 만들어가는 ‘청솔마을라디오’

매일 매일이 삶의 에피소드입니다

가을하늘에 쌀쌀한 바람은 낙엽비를 쏟아놓고, 또 한 바퀴 돌아 두툼한 단풍카펫을 깔아 두고 사라진다. 낙엽비 맞으며 어디선가 들려오는 마이크소리...그 소리를 따라갔다.

마을라디오 ‘청솔 FM데이트’가 분당비전색소폰동호회와 함께 야외에서 진행되는 3회차 공개방송 청솔마을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있었다.



## 신청곡과 사연을 접수받아...

노래방기기를 연결하여 공개방송 당일 현장에서 신청곡과 사연을 접수받아 신청자가 노래를 불러요. 라디오방송의 진행은 DJ들이 미리 계획해서 준비합니다. 오늘 공개방송은 분당비전색소폰동호회가 게스트로 초청되어 색소폰과 관련된 이야기와 게스트들의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멋진 자리였습니다. 단지 내 있는 어린이집 친구들이 점심을 먹고 잠시 자리에 함께 하여 어린친구들의 신청곡은 ‘아기염소, 솜사탕~’ 그야말로 예고가 없는 리얼~그 자체입니다.



‘나이 먹어 노래 부를 줄 몰라도 음악을 듣기만 해도  
들썩들썩 신나는데, 아이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겁네요’

- 청취자 마을주민의 한 마디.

## 마을라디오 ‘청솔FM데이트’는 양방향



일반적인 라디오방송과 달리 DJ와 마을주민이 소통하는 양방향, 마을주민과 마을주민이 소통하는 다방향의 소통의 장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마을주민이 라디오방송에 직접 참여하여 진솔한 삶의 이야기와 옛 추억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솔마을라디오는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라디오 방송공간과 교육지원 및 홍보를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곳 청솔6단지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방송국을 통해 서로 자주 만나며  
안부도 묻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니 DJ로서 행복감을  
느껴요. 또, 재능을 기부하며 봉사까지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해요’

- DJ 인터뷰 중.

## 라디오 방송을 통해 마을의 갈등을 풀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구밀도는 높아지고, 관계형성과 소통은 오히려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도 주민들의 소통으로 인한 갈등으로 문제가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3년 성남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마을미디어 공모사업에 지원하였는데 선정되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성남문화재단의 지원으로 ‘라디오DJ 양성교육’이 진행되었고, 2014년에는 ‘정규방송’을, 2015년에는 마을주민과 호흡하며 함께 만드는 ‘Open Studio’와 야외에서 진행되는 ‘공개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개국3년, 공개 방송인만큼 매일 매일이 에피소드입니다.

올해 7월 공개방송을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여든이 넘는 어르신 중 아코디언 연주하시는 분이 공개방송에서 즉석연주를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뛰어난 실력은 아니셨지만^^ 그런데 넘치는 열정만큼 실력을 못 보여주셔서 안타깝기도 했지만 처음 공개방송에서 재미있었던 기억입니다.

삼일절이나 현충일 때도 방송을 하는데 어르신들께서 옛이야기를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 등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 주민들의 소소한 이야기들로 소통의 장이 되고, 주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송입니다.

“공개 방송인만큼 매일 매일이 에피소드입니다.”





## ‘청솔마을라디오’ 애청자와 주민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골수팬~ 열분 정도 계시는데, 방송 중 퀴즈를 맞추면 고추장 등 작은 선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행, 영화 등 살아가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 이웃사촌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청솔마을라디오방송을 통해 이웃을 알게 되어,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주민들의 소리를 많이 듣고 파악하니 주민들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는 역할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 아닐까요?’

# 아이디어가 문화를 창조한다!

청년 창업멘토, 문화 숨 ‘플레이 마켓 재미’



문화 숨은 젊은 창작자 50여 개 팀(100명)이 판매자로 등록된 조합 성격의 플레이 마켓 운영체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만들어내는 대안놀이예술시장 ‘플레이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플레이마켓(play market), 플리마켓(flea market), 프리마켓(free market)은 모두 같은말로 통용되고 있으며, 프리마켓은 이미 창작자,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젊은 문화행사이자 문화공동체의 역할로 각광 받고 있다.



사회적경제 한마당에 참여한 ‘플레이마켓 재미’ 엄마와 아기모습을 캐리커처로 그려주고 있다.



‘플레이마켓 재미’는 솜씨재미, 예술재미, 놀이재미로 구성되어 각종 예술품, 공예품, 공연, 체험등 유무형의 창작물을 거래하는 곳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청년실업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용노동부와 성남시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젊은이들의 독특한 재능을 끄집어내어 제품을 생산하여 매출을 올리고, 번듯하게 사회의 일꾼으로 등장시키는 창업시스템으로, 현재 약 50명 정도의 젊은 사장님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해마다 그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문화 숨에 가입하면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행정절차에 미숙한 사회초년생들에게는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 문화 숨은 한마디로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리고, 키우는 문화예술 창조의 인큐베이터다.



### 문화 숨의 영역은 다양하다.

**첫째** 인문학, 예술, 마인드콘트롤, 대인관계에 대한 교육이다. 신나는 체험을 통해 각자의 재능을 비교하고 반성하고 자신을 승화시킨다.

**둘째** 마을 축제, 캠프, 베품시장, 바자회를 통해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프리마켓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셋째** 자신의 재능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커뮤니티 콘텐츠를 기획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여러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이 가능하다.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이면에는 가입에 필요한 자격이 충족돼야 한다.

플레이마켓 재미는 누구나 교류할 수 있으며 셀러는 15세에서 34세 청년들이라면 등록하여 참가할 수 있지만, 청년실업을 구제하는 목적이기에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자격에서 제외된다.



38 \_ 마을 그리고 시민이 만든 희망과 나눔의 복지





## 손으로 만든 모든것





문화 숨에서는 정기적으로 교육 워크숍도 진행하며 젊은 창작자들에게 다양한 재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숨의 젊은창작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나 근무시간 배정 등 자체 규칙은 엄수해야 된다.

문화 숨에서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장미나 팀장은 “재능을 가진 젊은 창작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며, 아직은 시작단계라 모든 창작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말한다.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11-1 동남빌딩  
302호에 위치한  
플레이 마켓 매장

2015년 7월 24일 협동조합 '문화숨'이 젊은 창작자들의 수공예물 전시·판매 공간인 '재미가게'를 4평 규모의 아담한 매장에 오픈하여 '문화숨'의 자체 심사를 통해 선정한 10개 팀이 만든 도자기, 캔들, 천연염색 의류, 한지공예, 화장품 등 다양한 핸드메이드 작품들이 전시 및 판매되고 있다.

문의 : 문화숨 플레이마켓 031-755-6683  
 culturewood@gmail.com , <http://munasum.com>

성남교육지원청 유니즌오케스트라



**아인스바움, **솎**이 **솎**을 더하다.**

장애청소년들이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세상

## 아름다운 선율, 아름다운 아인스바움

아인스바움 챔버(Eins Baum Chamber)는 2009년 지구촌교회 평생교육원의 전신인 문화교실의 특수교육 프로그램, 클라리넷 앙상블로 시작한 장애청소년 오케스트라단입니다.



아인스바움 챔버(Eins Baum Chamber)에서 아인스바움은 “하나의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아인스 바움은 씨앗이 싹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장애인들이 연주를 통해 장래 직업을 갖고 나아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단원들은 연주회를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재능기부를 함으로써 선순환 [善循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아름다운 선율에 이끌려...

오후7시가 넘은 저녁시간...

학생이 무거워 보이는 커다란 악기를 품에 안은 채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건물 어디에선가 악기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구촌교회에서 제공받아 사용 중인 연습실에선 이미 도착해 있던 학생들이 악기 연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 진지함이나 연주 실력은 실제 공연장에 와 있나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돌다리를 건너듯 늘 마음 졸이던 학부모님...

연습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켜보는 학부모님들의 표정은 대견함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부모께서 묻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아이들 잘하나요?”

“그럼요, 그럼요. 대단해요” 엄지 척을 올립니다.





장애학생들이 만드는 선율로  
모두가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 유니즌오케스트라]

## 오케스트라단 이현주 팀장님, 창단 계기는 무엇인가요?

8년 전 봉사를 하던 기관에서 1년에 단 두 벌의 옷만을 번갈아 입으며 구두를 닦아 생계를 유지하던 다운증후군 성인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노래를 하면 그 앞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지휘를 하던 모습을 보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도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회생활도 하고 취미,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저분들도 비장애인들의 그 평범한 ‘하루’를 공유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통해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장애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사회’를 경험시켜 주고자 또래의 비 장애 청소년들과의 합주 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별도의 선발기준 없이 따로 또 같이

별도의 선발기준은 없고 전화상담 후 방문 하시면 장애 정도 파악과 테스트용 악기로 어느 정도의 기능을 테스트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호자 분과 아이의 인내심이 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월요일 6:30분은 기초반, 7:30분은 합주반, 목요일 6:30분은 이 특별한 장애 청소년들과 함께 할 비 장애 청소년 반으로 진행되는데 행사를 앞두고는 이 세 반 모두 합주로 연습이 진행됩니다. 연습 장소는 미금역 지구촌교회 106호입니다.



## 특별하게 태어난 아이들, 조금 더 기다려줘야

우리 아이들이 특별하게 태어난 만큼 비장애아이들 보다 부모님과 저희들이 조금 더 기다려 줘야 합니다.

성남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아인스바움 챔버 오케스트라단 장애청소년들의 가능성을 보시고 2013년 10월에 유니즌오케스트라단을 창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창단 후 초청공연 등 활동을 하며 성남시의 장애청소년 오케스트라단으로 비장애인과 똑같은 '하루'를 보내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의 : 단장 이현주 010-8599-2728



---

# 드림, 시민이 만든 복지

---





## 친절과 웃는 얼굴의 감성복지

해피 바이러스!! 시청을 대표한 미소 선물

### 눈가의 주름이 살인미소 이덕근씨

시청에 차를 가지고 가면 누구나 지나는 곳. 조금은 사무적이면서 껄끄러운 주차 정산소. 그 작은 공간을 활기로 채우고 스치는 사람들로 행복의 문을 넘게 하는 분을 만났다. 6년째 시청 주차 정산소에서 근무하는 이덕근씨(66세). 처음 보는 사람을 응대하는 눈가의 주름이 살인미소로 불릴 만하다. 얼마나 오랫동안 따뜻하게 웃으며 친절을 베풀었는지 관록이 느껴지는 표정이다.

### 시청을 지나는 많은 분들이 항상 웃어주셔서 덕분에 행복해 진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요?

허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티켓 받고 '안녕히 가세요' 하는 거 말고 딱 거 없어요. 저뿐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모두 그래요. 원래 성격이 그런가 봐요. 항상 남에게 나쁘게 안 해요. 살아가면서 가슴 아픈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아내한테도 공처가예요. 시장에 가든 어딜 가든 짐 다 들어주고... 집에서 공처가라 나와서도 그래요. 누구에게나 친절한 편이지요. 누가 길을 물어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좌회전해서 차가 안 지나갈 때 1차선 붙어서 지나가 라고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지요. 그래서 친절하다 소리를 듣나?



## 제가 먼저 지갑을 연다고 생각해요.

화나고 마음이 언짢을 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저 양반이 느끼는 게 나랑 다를 수 있어. 그릴 수 있어’ 라고요. 낚시를 하다보면 옆 사람이 찌를 내 쪽으로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낚시를 방해 하는 거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즐기러 가는 건데 그런 사람 보면 어부 같아요. 그러면 그냥 옆으로 비켜요. 속으로 ‘참 낚시를 이상하게 한다. 낚시는 매너인데 더 잡으려는 욕심으로 내 쪽으로 보내나? 조금 잡으면 어때. 즐기러 간 건데’ 그렇게 생각해요. 딴 사람 같으면 싸우겠지만 전 그냥 비켜요. ‘이 친구 초짜구나’ 그러면서요. 제가 그래서 가난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먼저 지갑을 연다고 생각해요. 박카스 같은 것도 혼자 안 먹어요. 같이 먹자고 하면 기브 앤 테이크라고 낚시터가 어디 어디가 좋다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화나게 하는 친구들에 대해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지요. 도장 안 찍어서 주차요금 더 나오면 얼굴빛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는데 어디 방문하셨냐고 묻고 제가 문책을 당하더라고 좋게 보내드립니다. 고맙다고 음료수를 사가지고 올 때도 있어요.(웃음)





### 죽을 병 걸렸다 깨어났을 때도...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다고 부모님들이 그러셨어요. 죽을 병 걸렸다 깨어났을 때도 ‘나 누구야?’ 하며 웃고만 있더라고요. 싸움 안 해요. 공처가라 집안에서는 꿈쩍도 못합니다. 그러면 집안이 편하지요. 돈은 많이 못 벌어다 줘요(웃음). 그래도 집안에서 제가 할 일은 다 하지요.”

### 살면서 가장 슬펐던 일은?

뇌종양이 걸렸었어요. 9시간 수술하고도 다 제거하지 못해 방사선 치료도 했지요. 그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5년 안에 재발 안 되면 괜찮다는데. 처음 수술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하염없이 탄천길을 걸으며 뭐 잘못하고 산 게 있나 생각해 봤어요. 주운 돈도 끝까지 주인 찾아주려 노력했는데 뭘 잘못 살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재발 안 되길 바라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 미소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교대시간이 되어 서둘러 만남을 접었다. 이런 일로 인터뷰 할 사람이 아니라며 한사코 사양을 했기에 어렵사리 얻은 시간이었다. 더 오래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아쉬움이 남았다. 이덕근 씨는 자신의 친절과 미소가 원래 타고난 거고 별거 아니라 하지만 받는 사람들을 행복감에 젖게 하고, 좋은 기억으로 다시 시청을 방문하게 하니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음악재능을 나눕니다.



탄천 둔전교 아래 '지금은 공연중'  
산책길 즐겁게 해 주는 하나색소폰동호회



## 즉석 야외공연장, 탄천 길을 아름다운 선율로 물들여

시청에 차를 가지고 가면 누구나 지나는 곳. 조금은 사무적이면서 껄끄러운 주차 정산소. 그 작은 공간을 활기로 채우고 스치는 사람들로 행복의 문을 넘게 하는 분을 만났다. 6년째 시청 주차 정산소에서 근무하는 이덕근씨(66세). 처음 보는 사람을 응대하는 눈가의 주름이 살인미소로 불릴 만하다. 얼마나 오랫동안 따뜻하게 웃으며 친절을 베풀었는지 관록이 느껴지는 표정이다.



## 누군가에게 좋은 음악 선사하려는 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연습

현재 20여명 회원으로 이루어진 동호회의 봉사활동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남공설운동장에서 2013년까지 지속된 공연이 무대가 철거되면서 중단하게 되었어요. 해오던 좋은 일을 그만 둘 수 없어서 여기 저기 찾다가 이곳 탄천에서 허락을 받았지요. 4월에서 10월 중순까지 매주 토요일 7시는 비워두고 회원들의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악기 하나 배우고 싶은 마음에 시작은 했어도 누군가에게 좋은 연주를 들려주어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 바람을 항상 염두에두고 연습을 합니다.

회원 분들은 초보부터 베테랑 연주자까지 다양하지만 색소폰 이 배우기도 쉽고 빠른 시기 안에 완성도 있게 연주할 수도 있어서 한국이라도 열심히 하면 연주할 기회가 생깁니다.

폐활량 늘어 건강에 도움도 되고, 귀도 즐겁고, 좋은 동호회 친구도 만나고, 봉사할 기회도 가질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약속을 해 놓은 것이라서 책임감을 느끼고 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오셨는데 저희가 안 온다면 실망하시잖아요.

작년에 활동 내역보고와 실적 평가받아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성남시로부터 15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인정해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 봉사란 것이 시작이 반, 먼저 자신이 즐거워야

자영업에서 회사원, 공무원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낮에는 일터에서, 저녁에는 바쁜 시간을 쪼개 연습하고 토요일에는 노인요양원 봉사에, 탄천 공연에 설 틈이 없지만 “잘 들었다. 다음에 또 오겠다”는 말을 들으면 힘이 난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임이지만 연습실 운영이며 봉사를 위해서 비용이 드는데 회원 모두 십시일반 자발적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봉사란 것이 시작이 반이고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자신이 재미있고 즐거워야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팁도 새겨들자.

색소폰 연주가 나오면 옆의 자막에는 큰 글씨로 노래 가사가 나온다. 흥얼 흥얼 따라 부르는 객석의 즐거움도 쏠쏠하다. 곡목을 신청 받는 즉석연주도 흥겹고, 노래를 청하는 연주자의 요청에 응하는 용기 있는 손님(?)을 보며 슬쩍 ‘나도 다음에 연습해 올까’하는 생각에 괜스레 설레며 다음 토요일을 기다려 본다.



# 레몬컴퓨터

## LCD모니터 / 노트북 수리 전문

분당정자센터 031) 717-0779

### 컴퓨터 방문

컴퓨터  
A/S  
전



## 일터로 사랑방으로

이 사람이 좋다.  
마을의 행복 비타민 김영선씨!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느티마을 사랑방

### 또 다른 비타민, 레몬 컴퓨터

너무 느려 더 이상 쓰기 힘든 컴퓨터를 수리하려고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길을 나서는 주영씨. 두리번 두리번 하다 노란 간판이 눈에 띈다.

‘또 다른 비타민? 컴퓨터 가게 이름이 특이하네.’

친절한 주인아저씨에게 설명을 듣고 있는데 아이가 한 아름 과자를 안고 웃으며 나타났다. “아줌마가 사 주셨어.” 하며 주인 아주머니를 가리킨다. 아저씨가 수리하는 동안 칭얼대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과자를 사 주신 거다. 수리비가 얼마 안 나왔기 때문에 과자까지 사주시면 뭐가 남을까 싶어서 고마움과 미안함에 어쩔 줄 몰랐다.

그 후로 주영씨는 레몬 컴퓨터의 단골이 되었다.

굳이 컴퓨터와 관련된 일이 아니어도 정겹게 인사하고 들르고 싶은 곳. 컴퓨터에 대해 실제적 도움도 받지만 항상 두 부부의 마음이 고마워 가게 되는 곳.

그곳의 주인장, 둥글 둥글 선한 미소의 김영선 씨를 만나보았다.



## 웃음과 활력을 얻고 가는 곳!

레몬 컴퓨터는 느티마을의 사랑방이다. 주영씨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곳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들르며 쉬어간다. 웃음과 활력을 얻고 가는 곳! 요즘 같은 불경기에 15년이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지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우연히 들른 사람들에게도, 늘 들르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주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게 문을 여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주인장에게서 성실성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는 직업상 갖는 알팍한 처세술 아닌 오래도록 관계를 맺고 싶은 진솔함이 있다.



“오래 하다 보니 다양한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컴퓨터는 필요하고 카드로 살 형편은 안 되고 그냥 10개월 할부로 사게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조금씩 돈 될 때마다 갚겠다는 거죠. 한 4분 정도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하도 사정이 딱해서 그렇게 드렸죠. 어떤 분은 한두 번 내고 그냥 사라지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아주 한 참 지나서라도 다시 오셔서 갚으셨어요. 갑자기 사라지신 분들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겠지만 이유라도 설명해 주면 그렇게 섭섭하지는 않을 텐데... 나중이라도 찾아오신 분들 때문에 헛산 거는 아니다 싶어요.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겠죠. 제 성격의 장점이자 단점이 매몰차지 못하다는 거예요.”하며 소탈하게 웃는다.





## 살고 싶은 동네란 삶의 추억들을 나눌 수 있는 곳

조용히 김영선 씨는 이제 컴퓨터는 하향산업이지만 그래도 힘닿는 데까지 가게 문을 열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만한 동네를 만드는데 자신의 작은 일들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그의 바람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동네는 어떤 곳인가 생각해본다.

뽀뽀이 들어선 고가의 마천루, 유명인이 이웃인 곳, 편리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일 수도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살고 싶은 동네는 지나다니며 늘 그 자리에 있는 삶의 터전들, 문을 열면 익숙한 사람이 있고 삶의 추억들을 나눌 수 있는 곳,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곳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직업적 소신으로 성실하게 한 자리를 지켜내며 비타민 역할을 하는 김영선씨 같은 분이 있는 동네가 살고 싶은 동네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 이웃과 소통하는 의료

살구나무 심는 한의사  
행위로서 의술 아닌 '인술(仁術)' 실천하다



## 행림은 아름다운 의사를 일컫는 말

옛 중국의 동봉이라는 의사는 환자가 치료비를 낼 형편이 안 되면 치료비대신 살구나무를 심게 하였다. 이렇게 심겨진 나무는 수 만 그루가 되어 살구나무 숲을 이루었고 동봉은 다시 그 열매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배고픔을 해결하고, 한약재로 사용하였다. 이후 살구나무 숲을 의미하는 ‘행림’은 인술의 상징이 되어 의사를 아름답게 부르는 이름이 되었다.

수정구 단대동 길벗 한의원 벽면에 ‘아낌없이 주는’이라는 문구와 어우러진 ‘나무’는 이 ‘행림’을 형상화 한 것이다. 개원할 때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이웃들과 함께 하겠다는 바람을 표현한 것이다.

다음은 우리지역에서 인술을 구현하는 박재만 원장님의 이야기이다.



## 마수걸이 기부

성남 이로운 재단에 매일 첫 손님이 내는 이용료를 기부하는 것이다. 취지를 설명하고 첫 손님이 직접 기부통에 넣도록 하고 있다. 금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매달 진료비에 따라 다르다. 1년에 주제를 정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미혼모등 필요한 곳을 도우려고 한다. 누군가에게 막연히 좋은 일에 쓰이겠지 보다는 유니세프 같은 단체와 같이 구체적으로 대상을 정해 도우려고 한다. 금액이 많지 않지만 수익금의 일부라도 지역사회에 순환하겠다는 의도로 시작한 것이다





## 기부, 건강강좌, 지역사회 의료자원으로 지역과 소통

길벗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곳에 의료지원을 하는 한의사 모임이다. 학생 때부터 소외된 지역, 억울한 문제로 농성중인 현장을 방문하여 의료지원 활동을 해왔다. 최근에는 세월호 가족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약도 지어주고 치료도 하고 있다. 이런 활동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의료지원도 의미가 있지만 의료인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는 움직임도 있다.

우리 의원은 뜻을 같이 하는 길벗한의사 동료들이 세운 일터이다. 중점을 두는 사회참여 활동으로 첫 번째가 마수걸이와 같은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이고, 두 번째는 자활센터에서의 건강강좌와 지역기관 의료지원이다. 복지관 2곳을 정하여 원장 3명이 한 달에 한 명씩 봉사를 간다. 일터에서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여건이 되는대로 필요한 곳에 의료봉사를 하고자 한다.

의료기관이 치료에만 국한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소통하고 자기 역할을 찾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기를 바란다. 행위로서만 치료하고 비용 받는 것에서 나아가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바람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다.



## 환자가 소외되지 않는 진료

개원하기 전에 성남 의료생협에서 의사를 했다. 의료생협은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이다. 의료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인데 너무 특정인들에 의해 전문화되다 보니까 정작 의료가 필요한 사람은 대상화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끌려가게 된다. 이게 심해지면 하는 거처럼. 필요한 사람은 많은 것을 묻고 싶지만 제공하는 사람은 더 많은 진료를 해야 돈을 버니까 대충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다. 그런 면에서는 의료생협이 대안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사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들어왔다. 마침 개원을 하겠다는 타이밍과 잘 맞아서 시작하게 되었다. 자신의 기준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행복감은 다르다. 나는 의료인으로서 조합에서 모임을 하고 소속감이 있어서 보람이 있었다.



## 소통과 나눔에 대한 생각은 언제부터?

대학 입학하던 93년에 약국에서 한약 파는 문제를 시작으로 한약분쟁이 터져 격동의 1학년을 보냈다. 그렇게 예상치 않은 사회적인 문제와 부딪히며 세상을 알게 되고 뭐가 문제인지 알게 되었다. 그런 중 나는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과를 갔고 그래서 한의과 들어와 평생 이 직업으로 사는 것이 도식적이고 단편적인 인생설계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방향이 컸다. 그러던 중 한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네가 사회적 문제에 관심 갖고 활동 하는 것은 좋아. 예전 선배들은 사회 참여를 위해 공장 노동자로 취업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지났어. 네가 그 관심과 열정을 의료분야에서 해 나간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의료분야는 사회 참여 쪽으로 미개척분야고 누군가 마음을 먹고 하고 싶어도 의사가 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는 조건이 되고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다. 사회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고민을 했지만 내가 하고 있던 공부와 연결해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못 하고 있었는데 그 단서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렇게 늦깎이로, 이유 있는 목적으로 의학에 매진하게 되었다.

## 기부는 순환구조로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눔은 이렇게 순환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람직한 나눔은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받고 또 그것을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흘러 보내는 그런 것이다.



## 대학병원에 위탁된 시립병원은 별 의미 없어

성남시 의료원 시립병원 추진위원회 일을 하고 있다. 공공의료 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 성남시 의료의 질이 비할바 없이 달라질 것이다. 기존 조례안처럼 대학병원 위탁을 하게 되면 그냥 큰 병원이 들어온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병원이 초기에 세팅이 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은 공익을 위해서 감수해야 한다. 처음부터 비용이 겁이 나서 다른 곳에 위탁을 주면 잠정적으로 시민의 주머니에서 계속 돈이 나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위탁받는 곳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성남에서 공공의료기관 센터로서 100만 주치의사제도,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좋은 공약을 실천하려면 위탁보다는 시립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문의 ‘행림’ 이야기에는 치료비의 대가라는 명분으로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게 희망을 심게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박 원장은 그 의미를 실천하므로 보는 이와 만나는 이에게 살구나무를 함께 심자는 메시지로 전하고 있다. 자신의 일터에서 ‘인술’을 베풀고, 또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선순환되어 아름다운 살구나무가 가득한 사회를 꿈꿔본다.



## 장애청소년들에게 희망을

테이블 위의 작은 공... 희망되어 날다  
장애 디디고 감동의 매신저 된 배민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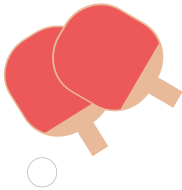
### 오늘의 배민수를 있게 한 것들

민수(22세)는 중3 때 처음 서현 청소년 방과후 교실에서 탁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조그만 하얀 공이 테이블 위에서 똑딱 거리며 물결치는 매력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잊어 본 적이 없다. 자그만치 7년. 처음 사랑 한결 같은 마음으로 민수는 날마다 탁구대 앞에 섰다. 연습, 연습... 종일 해도 힘들지도, 지치지도 않았고 탁구를 하게 된 것이 행복했고 모든 것에 감사했다. 처음 탁구 교실을 알려 주신 아버지, 또 탁구채를 함께 쥐고 신세계로 안내해주신 수련관의 코치님들.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운동의 기회를 준 환경과 지원들. 칭찬하고 박수 쳐 주신 많은 분들. 이 모든 것이 오늘의 배민수를 있게 한 것들이다.



## 아버지, 어머니, 동생 모두 장애인

보통 사람이라면 무엇 대단한 것일까 생각하겠지만 민수의 이력은 평범하지 않다. 본인 지적 장애인, 아버지 시각 장애인, 어머니 지적 장애인, 두 동생들 모두 지적 장애인으로 부모나 주변 가족의 특별한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 부모의 전폭적 지원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다른 장애 선수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그럼에도 재능과 열정을 알아보신 수련관 선생님들 추천으로 장애 청소년 탁구단에 선발되며 본격적인 탁구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 함께 시작한 친구들이 그만두고 새 친구로 바뀌어도 민수는 오키에 연습에 매진하였다. 온 종일 탁구만 생각하고 아버지로 부터 ‘네가 탁구에 미쳤구나!’ 라는 말도 들었다. 시합이 가까워 올 때는 더욱 매진하느라 잠도 자지 않고 밤새 벽에 탁구공을 쳤다고 한다. 그 결실로 중고등 장애학생 탁구대회에서 금메달도 땀고 전국체전에서 단체전 동메달도 따게 되었다. 국가 대표 선수를 목표로 한창 할 때는 전국 랭킹 8위까지 한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명실 공히 성남시 장애인 최고의 탁구선수이다.



## 탁구시작 후 생활패턴 완전히 달라져

탁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남은 시간들을 그냥 집에서 자거나 무료하게 보낼 때가 많았는데 민수의 아버지는 탁구를 배운 뒤 민수가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크고 작은 일로 말썽 부리는 일도 사라졌고 아침 일찍 일어나며 생활패턴이 완전히 달라졌다. 늘 연습이나 시합 때 부모 대신 동행하셨던 선생님은 민수가 밝아지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며 친구들과 사회성이 좋아졌다고 한다. 장난이 심한 동생들에게 탁구를 가르칠 때는 ‘그만 장난쳐라 탁구하러 왔지 장난치러 왔냐’고 따끔하게 위엄을 보인다.



## 민수의 꿈은 장애인 국가대표

민수의 꿈은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었다.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탁구가 좋고 계속하고 싶다. 수련관에서 후배들의 연습을 돕고 함께 탁구공을 넘길 때 행복하지만 이제는 탁구를 그만둘 거라고 한다. “탁구가 싫어졌어요?”하고 물으니 “그건 아닌데요, 이제 취업해야 돼요. 국가대표 안 되니까 이제 탁구 그만 두어야 해요” 라고 말하는 민수의 말꼬리가 젖어든다. 지도자의 길을 가고 싶어도 생활체육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는데 민수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제한적이다. 장애가정의 맏아들이고 가정의 역할도 감당해야 할 민수가 계속 탁구를 하는 것은 사치일까?



장애극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으로 인해 민수와 같은 환경의 친구들이 발탁되고 재능을 키우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아동기나 청소년기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인 지원에서 더욱 나아가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 글을 마치며 탁구에 대한 몰입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민수가 탁구와 생업을 연결하고 계속 탁구대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바람을 적어본다.



## “고급 요양원에서 살라구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성남시의 자랑 명불허전 홍계향 할머니

지난 6월 ‘행복한 유산 기부 성남시 1호’로 이름을 올린 홍계향 할머니를 만났다. 기부한 4층 빌라(시가 5억 5천) 건물은 할머니가 반평생 어렵게 모은 재산으로 사후에 성남시에서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유산 기부에 관한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알던 아주머니랑 이런 저런 이야기 하다 ‘할머니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할거야?’ 그러기에 나 죽으면 시에서 알아서 하겠지 했더니 ‘죽기 전에 해야 제대로 될텐데’ 그 말에 내가 힌트를 얻어 바로 다음 날 시장 찾아 나섰지요. 전에 시장실 체험 한 적도 있고 내가 길을 모르나? 내 입이 길인데 그냥 바로 찾아갔지” 하며 기부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결단력과 실천력에 놀랐다.



### “고급 요양원에서 살라구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건물을 올리자는데 돈이 있어야지요. 업자가 와서 비용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며 짓는데 그동안 우리는 움막에서 살았어요. 완공되고 나서 3개 층에 각각 전세 8천을 업자들이 빼가는데 우리한테는 그게 2억 4천 빛이더라구요. 공터에 야채 심어 노점상도 하고, 청소 등 힘 닿는 데로 벌여 세입자들 돌려주고 사글세로 바꿨죠. 지금은 보증금을 많이 낮췄어요. 전세금이 다 빛인데 그랬더라면 기부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집이 잘 지어져서 3층에 살고계신 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우리 식구만 살면 되는데 큰 집이 왜 필요했겠어요? 어쩌다 보니 생긴거죠. 죽고 나면 그만인데 이 집이 좋은 일에 쓰이면 감사하지.

사람들은 팔아서 고급 요양원에 들어가 편하게 살지 왜 그랬냐고 하데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성남에서 벌어서 살았으니까 성남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지요. 나는 지금 이 동네가 좋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랑 지내다 가면 되지요. 여기 가까운 동생은 내가 기증했다니까 ‘언니야 그럼 이제 갈 데 없으면 나랑 여기 조그만 쪽방 얻어 살자’ 하더라구요. 내가 금방 집 비워줘야 하는 줄 알고 그러기에 그 맘이 어찌나 고맙던지. 아니다 내가 여기 살다 죽으면 그 다음에 기증하는 거라구 설명해줬지요. 이런 동네를 어떻게 떠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살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지.”



## 사후장기기증을 하니 마음이 좋습니다.

2006년에 할머니는 서울대학교에 ‘사후장기기증’도 하였다.

“내가 그런 게 있는 걸 어찌 알겠어요? 이웃집 병문안 갔다가 옆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듣고 돌아와 나 같이 연고 없는 사람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114에 전화를 걸어 묻고 또 물어 하게 되었지요. 하고 나니까 그리 마음이 좋습니다. 차타고 덜컹거리 사람들이 아이 쿠 해도 나는 가면 또 몇 사람 살린다하니까 그것도 괜찮다 싶어요.”

체구도 작으신 분이 좋은 일에 어찌 그리 빠르시냐고 여쭙니 “난 생각하면 바로 해야 해요. 그렇다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어렸을 때도 부자집 친구들이 부러웠던 적이 없어요. 나는 나대로 사는갑다. 너희는 너희 대로 살아라 이런 마음이었지. 가만히 생각해 봐도 부러웠던 게 없어요. 나는 이렇게 내 재미로 살아요” 이렇게 말하며 웃는 소리가 유쾌하다. 또한 기부라는 것이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며 본인은 직접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한 게 아니라 실감 이 안 난다 하며 겸손해 하신다.

얼마 전 청와대를 방문하여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한 외국 여성을 가리키며 “이분이 의사인데 서울 똑방 판자촌 어른들을 40년을 돌봐주셨네요. 외국 사람이 저렇게 해줬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36명이 둘러 앉아 무슨 일 했다고 한마디씩 하는데 다 귀하고 좋은 사람들 이에요.”



## 사람들이 건방지다고 했을까? 그래도 할 말 해야지요.

“내가 유산기부식 할 때 시장님한테 ‘2번 당선돼서 축하해요. 부정부패 비리 저지르지 말고 월급으로만 살아요.’ 하니 시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건방지다고 했을까? 그래도 할 말 해야지요. 청와대 갔을 때도 비서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데 내가 대통령을 딸처럼 안고 ‘엄마 아빠 뜻하지 않게 일찍 잃고 결혼도 안고 나라를 어깨에 댄으니 얼마나 힘들겠노’ 하며 내 마음을 전했어요.”

할머니의 이 당당함과 따뜻함은 어디서 오늘 걸까? 할머니는 현재 노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독도홍보사절단, 금연홍보 캠페인,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나눔 자원봉사등의 사회적 활동에 부지런히 참여하시고 건강을 위해 복지관에서 자전거도 타시고 노래 프로그램도 수강하시며 즐겁게 살고 계신다.



유산 기부이후 할머니는 너무나 맘이 편하고 행복하다. 할머니 삶에 뒤늦게 꽃이 활짝 핀 것 같다. 지난 60년간의 결혼 생활은 창살 없는 감옥이었다고 말끝을 흐리는데 차마 일일이 옮기기 힘든 할머니의 지나간 시간이 짐작된다. 폭력 남편, 맞고 사는 엄마처럼 살기 싫어 결혼 하지 않겠다며 살다 병으로 죽은 딸. 딸애가 이혼하라 했을 때도 ‘무슨 소리냐 여자가 끝까지 한 집에서 살아야지’ 하며 지켰던 결혼 생활. 온 몸에 맞은 멍자국이 떠날 날이 없었는데도 남편이 밟지 않았냐는 말에 “아유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살기 바빠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라는 대답에 조금만 힘들면 투덜대며 깨뜨려 버리는 우리의 삶이 부끄러웠다.





## “부부 간에 싸우지 마라. 둘 중에 나은 사람 하나도 없이 똑같다.”

할머니와 헤어지며 나는 인사말이다. “부부 간에 싸우지 마라. 둘 중에 나은 사람 하나도 없이 똑같다. 서로 서로 양보하고 잘 살아야 한다.” 교과서 같은 이 말이 울림이 되는 것은 자신의 지나간 모습에서 직접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면 남을 위해 좋은 일을 결정하기 힘들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 고통들을 다 녹여내고 좋은 일에 자신을 던지는 할머니의 용기에 깊이 감동 받는다. 선행은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평안할 때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다시 한 번 새기게 된다.



## 혼자보다는 함께 win-win

지역상권과 의료업의 동행?  
 이 동행이 아름다운 이유를 찾다.  
 생명 살리고 인재 육성 하는데 지역사회참여 끌어내

### [아름다운 동행-후원의 집] 나눔 캠페인

지난 4월 차의과 대학교와 차병원, 야탑상인회, 야탑1동이 '아름다운 동행' 협약을 맺었다. 특별히 연관성 없는 기관들이 협약을 맺었다니 무슨 동맹일까 궁금하다. 생명사랑의 가치를 내걸고 후원의 집들은 매월 일정액을 후원하고, 병원 측은 임직원들의 모든 회식을 후원의 집에서 하며, 회원들이 병원을 이용 시 할인혜택을 해준다. 처음 30집을 시작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인재를 육성하고 난치병환우를 돕는 기금에 보탬이 된다는 보람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참신한 만남이 소위 win-win이다. 이 후원 캠페인은 성남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뜻있는 개인도 동참할 수 있다.

차병원 성인의 피부세포  
이용해 체세포 복제

인간배아줄기세포 성공

임상시험까지 무사히 마친  
다면 파킨슨병, 치매,  
뇌중풍 질환 환자 치료

향후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못 고치는 병들은 많다. 최근 차병원 연구소에서 이런 병들을 치료 하는데 있어서 희망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 하였다. 성인의 피부세포를 이용해 체세포 복제 인간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는 난치병 환자의 피부세포(체세포)에서 줄기세포를 만들어 맞춤형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안전성이 확보되고 임상 시험까지 무사히 마친다면 파킨슨병, 치매, 뇌중풍(뇌졸중) 같은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여건만 갖춰진다면 2년 안에 임상 시험이 가능하다고 한다.



## 한 사람의 천걸음 보다, 천명이 함께 한 걸음

의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항생제의 발견등 괄목할 만한 연구 결과물로 질병을 고치고 인류에게 건강한 삶을 선사했음을 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연구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일은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해야 할 소중한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병원과 지역이 협약을 맺어 나눔을 시작한 것은 아름다운 첫 걸음이다. 혼자서 걷는 천 걸음보다 천 명이 손잡고 걷는 한 걸음이 소중하다는 말이 있다. 기부액으로 따져보면 앞으로 진행할 연구기금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생명을 살리고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와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고 함께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는다. 지역을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사랑받는 병원,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좋은 병원이 되어 우리 동네가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곳이 되기를 바란다. 차병원이 향후 모범적이면서도 연구에 힘써 많은 사람을 살리고 좋은 일에 앞서서 성남이 자랑하는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 성남시 **복지**를 한 곳에, 종합적인 복지정보채널



시민과 함께, 시민 속으로! 복지는 힘이다!

# 2015년 제3기 성남시 복지정보통신원 '따스피아' 위촉식

일시 | 2015.03.13(금) 10:00 | 장소 | 출동관 | 주최 | 성남시 | 주관 |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 성남시 복지정보통신원은

생활 속 복지정보를 발굴하고 전달하는 메신저로,

우리동네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의 파트너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이야기, 사람이야기  
마을 그리고 시민이 만든 희망과 나눔의 복지**

---

**발행일** 2015.12.

**발행인** 성남시장

**발행처** 성남시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기획·진행** 성남시 복지보건국 사회복지과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취재** 성남시 복지정보통신원 '따스피아'

**디자인·인쇄** MIYA DESIGN HOUSE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Seongnam Welfare Information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www.snbokji.net ☎ 031-729-2837







